



장수교육지원청, 인문학 연계 독서토론 캠프 운영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근)은 지난 18일 충남 부여군 일원에서 '2025 인문학 연계 독서토론 캠프'를 운영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14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에서는 '신동엽 문학가행'을 주제로 신동엽 문학관과 부소산성, 정립사지 등 부여 지역을 탐방하며 부여의 역사와 문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장수중 2학년 오모 학생은 "책으로만 만난 신동엽 시인의 삶과 문학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깊어졌다"며, "2차 캠프에도 꼭 참여하여 내대주 시인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고 말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번 독서토론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책 속 지식과 현장 체험을 연계하여 깊이 있는 사고와 토론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지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시 주민복지과, 장애인·비장애인 가을 산행

남원시 주민복지과는 지난 18일, 전북 지리산 산악구조대 (대장 이성운)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가을 산행을 시행했다. 이 행사는 전북 지리산 산악구조대의 자원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가을 산행을 함께 하는 것으로, 지난해 노고단 산행에 이어 올해에는 뱀사골 천년송에서 관내 장애인 50명, 구조대 대원 25명, 자원봉사자 25명 등 총 100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1:1 매칭 천년송 산행뿐만 아니라, 지리산 산악구조대의 협조로 계곡 구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 진행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차남)는 20일,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를 실시했다. 세탁 서비스는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대한적십자사 남원지부와 협력하여 매월 운영되고 있으며, 이불을 직접 수거하고 세탁 건조한 후 다시 가정으로 전달함으로써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동충동은 1일 1가구 방문 소봉 행정을 통해, 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함께 점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항동, 경로당 노인회장들과 소통 간담회

남원시 죽항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점숙)는 지난 17일 관내 8개소 경로당 노인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어르신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소봉 행정을 강화했다. 간담회에서는 경로당 운영 현황과 각종 보조금 사업을 안내했으며 특히 따뜻한 건강밥상 경로당 식재료지원 사업의 혜택이 누려지지 않도록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했다. 임점숙 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소통과 여가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일본 가고시마시 국악으로 우정과 문화 교류

전북 어린이국악관현악단, '제18회 가고시마 아시아 청소년 예술제' 참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예술 인재들이 일본 무대에서 국악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은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가고시마시에서 열린 '제18회 가고시마 아시아 청소년 예술제'에 참가해 국악을 매개로 아시아 청소년들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전북도 어린이예술단은 2000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단된 이후, 전문 지휘자와 지도교사의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매년 5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이어오며 국내 어린이 예술교육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특히 일본 가고시마시에서 매년 열리는 이번 예술제에는 꾸준히 참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어린이교향악단이 무대에 올라 전북 어린이들의 예술적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렸



다. 올해는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이 참가해 국악관현악곡 '하늘의 뿔'과 '소리놀이 1+'을 연주하고, 아이무대에서는 가야금으로 'Fly Me To The Moon'을 선보였다. 약 15분간의 무대에서 단감각적인 공연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예술제 참가에 앞서 단원들은 가고시마 하가시 고등학교를 방문해 다도·전통무용 등 일본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어·국제어에 과목을 배우는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환경 리셉션과 국제 교류 파티에도 참석해 일본·중국·태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 청소년들과 우정을 쌓으며 문화적 감수성을 한층 넓혔다. /이만호 기자



성장사다리 선도기업 팜조아, 취약계층에 성품 기탁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사다리 선도기업인 (주)팜조아 농업회사법인이 따뜻한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주)팜조아는 20일 전북자치도를 방문해 3천만 원 상당의 농품 2만 봉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품은 도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황은경 (주)팜조아 대표이사, 이은영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화답을 내렸다. 최근 코스트코와 계약해 지역 경제산업 내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진 (주)팜조아는 2015년 설립 이후 배, 밀키트, 소분고기 등 다양한 제품을 10년째 꾸준히 사회에 공헌하며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황은경 대표는 "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의 신뢰와 응원 덕분에"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진안 주천면서 황단대제 봉행 106주년 기념행사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화양산 황단에서는 20일 황단대제 봉행 106주년 기념행사를 유림, 제자, 후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정오에 복록을 향해 생살, 생고기 등 제물을 진설하고 성인예에 따라 초헌관에 주영환 부군수, 아헌관에 이순구(전주이씨 종약원 전북지원 부위원장), 종헌관에 임석훈(용담향교 유림)장이 헌작했다. 해마다 음력 8월 그믐에 진안 주천면 대불리 화양산 정상에 자리잡은 화양산 황단에서는 수당 이덕을 선생의 제자 및 후손과 전주·군산·익산·대전·완주·논산·부안·인천·서울에서 온 유림을 비롯한 지방 유림들로 하여금 천극(天極)·상제 지극(地極)·공자 인극(人極)의 고종 황제 등 3국을 받들고 국가의 안위와 문화창달 및 조선왕국에 따른 자주독립을 염원하는 삼국제가 106년째 진행되고 있다. 황단은 1919년 고종황제의 승하소식을 듣고 비분강개 정인수를 올리고 4배 통곡한 후 3년간 초하루와 보름에 제자들과 화양산에 올라 3년간 망곡한 후 날로 쇠퇴해가는 민심과 기울어가는 국운을 만회하고자 황단 설단을 순종 임금께 상서를 올려 '학문은 천인을 꿰뚫었고 의기는 해와



별처럼 빛나니 유학의 적봉이요 우리 동반의 유종이다. 이에 "화양산에 높은 의리가 우뚝하니 바른 학문으로, 순수한 충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비답을 받아, 전라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사방 100리 안에 주천면 대불리 화양봉, 무릉리 선암봉, 신양리 제천봉, 정천면 갈무리 천황봉, 충남 금산군 두문봉, 파초봉 유제봉 등 7개에 산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소멸되고 오직 화양산 황단만이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2025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 많은 관심 속 성료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식의 직거래 장터로 운영해 매년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4일 개장에 매 4일과 9일마다 진안 장날에 맞춰 총 15회 동안 진행됐으며 약88톤(14만7천근)의 건고추가 거래됐다. 평균 해발 450m 이상의 고원지대에서 자란 진안고원 건고추는 겉집이 두껍고 빛깔이 선명하며, 향이 뛰어나 고춧가루로 가공해도 품질이 우수해 매년 인기를 끌고 있다. 진안군은 2026년에는 지난 2015년~2019년까지 고추 시장이 운영됐던 홍삼한방센터 주차장(진안읍 군상리 234 일원)으로 자리를 옮겨 고추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은 "고추 시장에 관심 가져 주시고



찾아주신 방문객과 농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촌지도자 남원연합회, 재순환 봉사활동 진행

농촌지도자 남원연합회(회장 안병영)는 20일 오전 9시부터 남원시 전 들녘에서 수거된 빈 농약병 및 폐농자재(30)를 재활용 가능한 자원과 처리자원을 분류하는 재순환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농촌지도자남원시연합회 임원 및 읍·면·직할 회장 등 23명이 환경과수꾼 역할에 중점을 두고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토양과 하천으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농약병 등 폐농자재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했다. 연합회는 빈 농약병 수거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매년 수거 전용 그물망을 배포해 농업인들이 쉽게 폐농자재를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농촌 지킴이 역할을 더욱더 수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2025년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무주군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이행과 유해·위험 요인의 사전 파악 및 개선을 위해 20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2025년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무주군청 소속 공무원, 공무원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모든 종사자 2백여 명이 참석해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에 적용·실천하는 계기로 삼았다. 강의를 맡은 대한안전협회 전북지회 김희근 부장은 △위험성 평가 제도의 개요와 주요 사고사례 분석, △위험성 평가의 단계별 절차 및 유형별 적용 사례, △직장 내 안전관리 실천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교육했다. 양영두 무주군 안전재난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다비치안경 평화사거리점, 전북동 어르신 안경 지원

20일 다비치안경 전주평화사거리점(대표 이창하)은 전북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명의 저소득 어르신을 초청해 정밀한 시력 검사를 진행하고, 맞춤 안경과 돌보기를 지원했다. 다비치안경 전주평화사거리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동 주민센터,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연계하여 취약 계층에게 맞춤 안경을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날 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눈이 침침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했는데 무료로 예쁜 안경을 맞춰줘서 정말 고맙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창하 다비치안경 전주평화사거리점 대표는 "맞춤 안경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무주농협, '우리 쌀 사랑 캠페인' 전개

무주농협(조합장 박동열)이 지난 18일 적상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제33회 적상면민의 날 행사에 참여해 지역 주민과 행사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우리 쌀 뽕튀기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국산 쌀 소비 촉진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즉석에서 만든 뽕튀기를 나눠 주며 우리 쌀의 맛과 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동열 조합장은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현실 속에서,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자장면 무료 중식 행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승택)이 20일 김제말말회(회장 임동식)의 따뜻한 후원과 봉사로 장애인과 가족, 이웃 주민 300명을 초청해 자장면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 내 식당에서 따뜻한 사랑을 담아 직접 자장면을 만들어 대접했으며, 자장면을 나누는 자리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을 함께 어울려 웃음과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제말말회 임동식 회장은 "힘들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웃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택 관장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매년 장애인복지의문을 찾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김제말말회 회원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도태 기자